

기업들 힘겨운 여름나기...8월 경기 전망도 '깜깜'

한은 기업심리지수 0.7P·중기중앙회 전망지수 1.9P 하락 수출전망 가장 큰 하락폭...업황·자금사정 등 모두 나빠져

"9명이던 직원을 3명으로 줄였습니다. 주문 물량도 작년의 50% 정도 수준으로 올 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하나 고민입니다.."

광주의 한 산업단지에서 가스스프링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남모(72)씨는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금형 공장을 운영 중인데 냉장고 등에 들어가는 가스스프링을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수가 부진하면서 남씨의 공장 주문 물량도 급감해 공장을 운영하기가 버거운 상태라고 했다.

남씨는 "장마가 끝난 다음 달에는 주문 물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올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드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수 부진의 늪이 깊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전망에도 먹구름이 짙다. 무엇보다 열악한 자금 사정과 업황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지역 내 601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광주·전남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다음 달 기업심리지수(CBSI) 전망은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한 95.9, 비제조업은 2.5포인트 하락한 96.4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기업심리지수를 산출할 때 시이는 구성 지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의 경우 업황이 전달(71)보다 4포인트 감소한 67을 기록했고, 생산도 6포인트 줄어든 85, 자금사정은 81로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역시 업황이 70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줄었고, 매출은 3포인트 줄어든 75, 자금사정과 채산성도 각각 2포인트와 1포인트 감소한 74, 79를 기록했다.

기업심리지수는 물론 각 구성지수는 기준치(100) 이상인 경우에는 긍정 응답 업체수가 부정 응답 업체수 보다 많음을, 이하인 경우는 그 반대를 의미하는데, 내수 부진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날 내놓은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이날 15일부터 19일까지 지역 중소기업 20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8월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

망조사'에 따르면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6.9로 전달보다 1.9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중소기업의 다음 달 업황전망은 전국 평균(76.6)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100을 하회했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광주(74.3)보다 2.1포인트 하락한 72.2로 조사됐고, 전남은 81.3로 전달(83.2) 대비 1.9포인트 감소하는 등 광주와 전남의 중소기업 모두 부정적인 응답을 내놓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5로 전달(77.2) 대비 2.2포인트, 비제조업은 79.3으로 전달(80.7)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황 전망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전망이 전달(79.7)보다 6.5포인트 감소한 73.2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상이익(74.3→71.4), 자금사정(71.9→71.4),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3.1→94.2)도 악화된 것으로 파악됐다. 내수판매의 경우

전달보다 0.2포인트 상승했지만, 76.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7월 비제조업 기업들의 실적은 전달 전망지수보다 낮았다. 지난달 지역 비제조업 기업들의 7월 기업심리지수 전망치는 98.9였으나 실제 이달 심리지수는 이보다도 0.8포인트 적은 98.1포인트에 불과했다.

다만 이달 지역 제조업의 경영 활동은 전달 예측했던 것보다는 양호했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지난달 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기업심리지수 전망지수는 96.6이었지만 이달 기업들이 체감한 기업심리지수는 97.8로 전달보다 1.3포인트 오르며, 실제 경영 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 기업의 7월 생산BSI는 실적은 85로 전달에 비해 5포인트 상승했고, 매출은 21포인트, 신규수주도 7포인트 상승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파리 시내 두번째 '올림픽 체험관' 삼성전자는 30일 파리 시내 마리니 광장에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추가 개관했다고 밝혔다. 마리니 광장 체험관은 상설리조트에서 운영중인 체험관에 이어 두 번째 체험관은 다양한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다. '삼성 올림픽 체험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삼성전자의 올림픽 역사와 기술을 체험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올해 원유값 안 올린다...흰우유 가격도 동결

낙농가·유업계 협상 합의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을 두고 협상을 벌이던 낙농가와 유업계가 올해는 원유값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용도별로 동결하거나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 원료인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동결하기로 했으며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쓰는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L당 5원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 가격은 L당 1084원으로 유지되고 가공유용 원유 가격은 887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882원으로 더 싸진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11일부터 이사 7명으로 구성된 원유값 협상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올해 원유값은 농가 생산비와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L당 26원(음용유 기준)까지 올릴 수 있었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1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올해는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유값 협상은 당초 6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해관계자 간 이견으로 협상 기간이 이달까지로 연장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료비 상승 등에 따라 생

산자는 협상 최대치인 L당 26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우유 소비 감소, 멸균유 수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업계는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한 때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어려운 물가 상황,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상생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유값은 2019~2020년에는 L당 926원이었으나 2021년 947원으로 올랐다.

이후 지난 2022년 협상에서 낙농제도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지난해부터 원유값을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눠 책정하게 됐고 지난해 1월부터 음용유 기준 원유값은 L당 996원, 지난해 10월부터는 1084원으로 올랐다. 음용유 기준으로 원유값 동결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원유값 동결에 따라 원유를 주재료로 쓰는 유제품 가격 인상도 피하게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 매일우유, 남양유업 등 주요 유업체는 흰 우유 제품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다. 또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우유+인플레이션) 우려도 사라지게 됐다.

낙농진흥회는 용도별 원유 구매량 협상에서는 음용유를 9000t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9000t 늘리기로 했다. 음용유 구매량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낙농제도 개편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결정된 구매량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적용된다. /연합뉴스

쌀값 끝없는 추락...14개월만에 17만원대 하락

전남 재고 전년비 81%나 늘어 정부 현장 목소리 외면 뒷집만

결국 쌀값(80kg)이 17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쌀값이 17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지난해 5월(17만 8345원)이후 14개월 만이다. 정부가 쌀값을 80kg 한 가마당 20만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수급안정 대책은 헛말이 됐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쌀 한 가마(80kg) 가격이 지난 25일 기준 17만 9516원으로, 지난 15일 가격(18만 1148원)보다 1632원(0.9%) 떨어지면서 17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5월(17만 8345원)이후 1년 2개월 만에 17만원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올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

군가격인 평년가격(19만 1022원)과 비교하면 무려 6%(1만 1506원)나 떨어졌다. 20kg짜리로는 4만5287원 수준이다.

통상적 쌀값 추이라면 매년 수확기(10~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5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서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로는 가격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농민들 우려다. 햅쌀(조생종)이 나오는 8월 중순이 되면 광주·전남지역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중인 기존 쌀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재고 쌀을 털어내려는 RPC측의 저가 방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의 경우 농협 RPC 등의 재고 물량이 10만 4000t으로 전년보다 81%(6만 7000t)나 많은 상태다. 자칫 올해 햅쌀 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농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미온적인 정부 대응 방식도 쌀값 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말로만 '쌀값 20만원

선 유지'를 밝히면서도 쌀 목표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시장격리도 하지 않았고 쌀값 하락에 따라 시장 격리(23년 산 쌀 재고물량 10만 t)를 요구하는 전남도 등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시장격리 물량을 확보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전남 농협 RPC 등의 벼 매입량은 52만 8000t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보니 지자체와 광주·전남 농협을 중심으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홍보', '광주쌀 5만포(20kg) 팔기 운동', '아침밥 먹기 운동' 등 자체적으로 쌀 소비 촉진에 총력을 벌이고 있는 형편이다.

전남도는 또 이달 중 전남 서포터즈 등과 연계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30일 광주신세계 본관 5층 안도르 매장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쿨링 레깅스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스포츠웨어 최대 80% 할인판매

광주신세계가 스포츠웨어를 기반으로 활동이 편한 의류들을 대상으로 시즌오프 상품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과 일상 모두 입을 수 있는 '애슬레저(athletic+leisure)'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신세계는 애슬레저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의류 브랜드들을 선보이고 있다.

본관 5층에 입점한 '안도르'는 오는 8월 4일까지 '썸머 시즌오프'를 열고, 시즌오프 상품들을 최대 80% 할인판매한다. 안도르에서는 신축성 좋은 소재를 활용하며, 요가복과 필라테스복으로 유명하며, 쿨링 레깅스부터 4.5부 레깅스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어 신관 지하 1층에서는 애슬레저 의류 브랜드 '제시믹스'가 오는 8월 1일까지 '썸머블프' 프로모션을 진행해 최대 6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제시믹스는 요가복 브랜드로 이름을 알렸지만, 런닝복부터 비즈니스 캐주얼 스타일의 일상복, 골프 라운드로복 등으로 분야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제시믹스는 브랜드만의 차별성을 갖춘 의류부터 신발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이며 고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운동복과 일상복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38.19 (-27.34)
↓ 코스닥	803.78 (-4.21)
↑ 금리(국고채 3년)	2.990 (+0.012)
↑ 환율(USD)	1384.20 (+2.30)

회생이나, 청산이나 갈림길 선 '티메프'...모기업 자구책 가능할까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가 끝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회생이나, 파산이나의 갈림길에 섰다. 업계에서는 결국 티몬과 위메프 생사는 모기업인 큐텐이 어떠한 자구책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내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채권자가 ARS 시행에 동의할 경우 법원은 최장 3개월의 기간을 주고 신청 법인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자체적인 자금 조달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티몬과 위메프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회계 기준상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티몬이 1310억원(2022년 기준), 위메프는 617억원(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이 추산한 판매자 미정산금 2100억원에도 한참 못 미친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유동부채가 각각 7193억원, 3098억원으로 유동자산의 6배 안팎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유동자산을 피해 복구해 활용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특성상 부동산을 포함해 처분할 만한 비유동 자산도 많지 않다.

이 때문에 모회사인 큐텐의 조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큐텐은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 수혈할 자금을 해외에서 끌어오려고 시도하고 있다.

큐텐 측은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위시를 통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다음 달 중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